

루마니아, IMF의 차관자금 지출 재개로 대외신인도 개선 기대

□ IMF, 대기성차관 2차분 자금 지출

- 2001년 10월 말 IMF는 루마니아 정부와 3억 SDR(3억 9,600만 달러)의 대기성차관 지원에 합의하고 5,200만 SDR(6,900만 달러)를 지출하였으나, 공공부문 인력감축과 국영기업 구조조정 실적에 대한 이견으로 지난 5월부터 2차분 자금지출을 지연시켜 왔음.
- 2000년 말 출범한 이후 적극적인 개혁정책에 대해 IMF와 국제금융 시장으로부터 호의적 평가를 받았던 現 사회당 정부는 IMF의 지원 중단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되었음. 특히, IMF의 조치가 수도인 부쿠레슈티에서 개최된 금년도 유럽개발은행(EBRD)의 연차총회 시점과 겹쳤다는 점에서 Nasetase 총리에게는 큰 부담이 되었음.
- 그러나 8월 28일 IMF는 차관자금 2차분 8,270만 SDR(1억 900만 달러)의 지출을 재개하였으며, 이번 조치로 루마니아 정부는 다시 한번 개혁정책에 대한 IMF의 지지를 확인 받게 되었음.

□ IMF, 양호한 거시경제 성과 긍정적 평가

- IMF의 대기성차관 지원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음.
 - 인플레이 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해 통합재정수지 적자 축소, 공공부

공공부문 임금 및 고용계획은 공기업의 수익성 및 경제전반의 인플레이션 압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IMF는 루마니아 정부가 최저 임금을 과다하게 인상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음. 또한, 2001~02년의 에너지 가격인상 요구에 이어, IMF는 루마니아 정부에 대해 전기료 등 공공요금 징수의 문제점도 보완할 것을 촉구하였음.

□ 민영화사업도 활발하게 추진할 듯

- 금년 상반기 중 고용인원 1,000명 이상인 대기업 5개를 민영화시킨 데 이어 9월 말까지 추가로 8개 기업을 민영화시키는 등 루마니아 정부는 IMF와 약속한 대로 공기업 민영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됨.
- 특히, IMF는 에너지 부문 공기업과 국책은행인 루마니아상업은행(BCR)의 조속한 민영화를 촉구하였으며, 루마니아 정부도 오는 12월까지 국영석유회사인 Petrom의 구체적인 민영화 계획을 세울 예정임. 또한, 당초 금년 12월까지 완료키로 IMF와 합의하였던 BCR의 민영화 사업도, 다소 지연되기는 했으나, 2003년 2월까지 완료시킬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그밖에 가스 및 전력부문 민영화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IMF와의 부속협약에 따라 민영화 추진이 활기를 띠 전망인데, 우선 9월 중 2개 배전(配電)회사에 대한 입찰 공고에 이어 2003년 3월까지 2개 가스회사에 대한 입찰도 공고될 예정임.

□ 루마니아 정부, 대외신인도 개선 기대

- IMF의 자금지출 재개는 국제투자자들에게 루마니아 정부가 확고한 개혁정책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을 확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루

마니아 정부도 이번 기회를 통해 자국의 국제신인도가 개선되기를 희망하고 있음.¹⁾

- 한편, 그 동안 중단되었던 세계은행의 3억 달러 규모의 2차 민간부문조정차관(Private Sector Adjustment Loan: PSAL-2) 협약 논의도 재개될 것으로 보임. 무엇보다 공산체제가 붕괴된 이후 루마니아가 5차례에 걸친 IMF의 지원프로그램 이행에 모두 실패했던 이력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란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음.

책임연구원 고재호(☎3779-6663)

E-mail : kohjh@koreaexim.go.kr

1) 동국의 장기외화채권에 대해 S&P는 B+ 등급을, Moody's는 B2 등급을 각각 부여하고 있음. 특히, 동국은 EU 가입 등에 있어 직접 비교대상이 되고 있는 불가리아(S&P는 BB-, Moody's는 B1 등급 부여)에 비해 낮은 등급이 부여되고 있음.